

# 세월호 수습 목포신항에 ‘작은 정부’ 가동

10개 기관 공무원 105명 상주 ‘수습본부’ 운영

수습반·장례·가족·언론지원 등 5개 반 구성

세월호가 침사 3년 만에 인양이 완료돼 목포신항에 거처되면서 수습 현장에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정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작은 정부’가 본격 가동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선체가 거처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10개 기관 공무원 105명이 상주하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를 꾸리고 운영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6면>

현장요원들은 미수습자 수색과 신원확인, 장례 및 유류품 정리, 가족지원에 나서게 된다. 참여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를 주축으로 국민안전처(해경·소방),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경찰청·국립과학사

연구원), 전남도, 목포시, 안산시, 경기도 교육청 등이다.

수습본부 인원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검찰) 담당자도 상주하며 수습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에 나설 예정이며 환경부, 고용노동부도 수시로 협의에 참여한 다. 사실상 8개 중앙부처가 협업에 나서는 것이다.

수습본부 총괄은 이철주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이 맡게 되며 수습반, 현장지원반, 장례지원반, 가족지원반, 언론지원반 등 5개 반으로 역할을 나눈다.

가장 중요한 미수습자 수습에는 해수부와 해경·소방·국과수가 참여해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되면 현장에 파견된 검찰 지휘하에 해경, 국과수 관계자가 현장보전, 채증, 기록, 유전자 검사 등을 해 신원을 확인한다.

미수습자가 수습되면 해수부와 복자부, 해경, 경기도 교육청, 안산시가 장례를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유해 보존과 입관, 추모식 등 장례절차를 직접 돌거나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목포시는 부두 인편에 미수습자 가족 거주 공간 및 유기족 대기공간을 제공한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희생자 유류품·화물·폐기물 등으로 분류한 뒤 유류품은 세척·건조 작업을 한 뒤 목포에서 습득 공고를 내 가족에게 인도한다. 이 분야는 해수부와 해경, 전남도, 목포시가 맡게 된다.

유류품 중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지정된 업체로 옮겨져 복

원 시도 등을 하게 된다.

복자부와 소방본부는 현장에 의료진과 응급구조사를 상주시켜 응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체가 애초 계획했던 지점까지 옮겨지지 못하고 바다 쪽 40m 지점에 거치됨에 따라 현장수습본부는 현장 시설 배치안을 일부 수정해 배치할하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주변에는 폐기물 수집장과 유류품 분류 및 세척을 위한 임시 보관실, 유류품 건조 공간 등 컨테이너 30동 규모의 작업 시설이 들어선다. 선체 뒤편에는 지난해 말부터 사무실 용도 컨테이너와 샤워실·임시 숙소 등 60여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습본부는 최소한 선체 내부 수색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연합뉴스

## 檢, 차은택·송성각 징역 5년 구형

‘국정농단’ 첫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

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차씨에 대해 “최순실씨에 의해 그 커리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만 횡령·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개선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에 속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단계에서 본 범정에 이르기까지 개선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檢 “고영태 사건, 국정농단과 분리 수사”

‘세관 인사개입 의혹’ 영장청구 검토

검찰이 고영태(41)씨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분리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고씨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씨 사건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수사팀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씨가 받는 의혹을 국정농단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인식해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 7부에서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고씨는 사기혐의 관련 고소 권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사기혐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이 11일 저녁 고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고씨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 측은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12일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된 고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中 “북핵 대화로 해결 입장 불변”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

중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전화 통화를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루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에 대해 “오전 통화 중에 양국 정상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은 양국 대표단의 합의에 주목했고 양국이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공동 관심사에는 한반도 핵 문제와 시리아 문제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루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영장 기각... 또 살아난 우병우 ‘무소불위’ 민정수석 권한 논란

靑 10개 수석 중 막강... 권력 구조 개선 목소리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 직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론은 여전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10개 수석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로 평가된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은 권력서열 3위로 언급되기도 한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제정보 등 4대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민심 동향 파악 ▲사정 및 공직 기각 확립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등의 역할을 한다.

대통령 권력 유지의 두 기둥인 ‘사정권’과 ‘인사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실제 중 실세’라는 꼬리표가 뒤따른다.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부패 사수에 무일 가능성도 그만큼 큰 자리다.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임명해 이듬해 2월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우 전 수석도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1년 8개월 간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민정수석의 영향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배후에 있는 K스포츠클럽 관련 사의 추구를 지원하고자 대한체육회 검찰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특히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작년 수사 선상에 오른 7~10월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석달 간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위를 활용해 자기 사안에 영향력을 미쳤을 개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침사 당시 해양경찰의 인명 구조 책임을 규명하고자 광주지검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이를 무마하고자 우 전 수석이 입김을 불어넣은 정황도 포착돼 특검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핵심 권력이 민정수석에 집중되는 현상은 분명 타파해야 할 문제”라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청와대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목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투로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 분야**

- 기업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주택/사무실/공장/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점,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물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물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물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물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일야 36,000㎡ 매 3억
- 장성동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입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안동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서양새마을금고 공고 제2017-1호

**부동산매각입찰공고**

1. 입찰물건 목록

가. 광주시 남구 서동 241-2  
대지(199㎡), 3층건물(282.71㎡)  
최저예정가격(W481,566천원)

나. 광주시 남구 양림동 93-26  
대지(168㎡), 2층건물(198.11㎡)  
최저예정가격(W420,172천원)

2. 입찰일시

2017. 4. 26. (10:00 ~ 11:20)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불임서류 등은 서양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cafe.daum.net/seoyang)에서 확인.

문의 062-720-2871

**서양새마을금고**